# **백연 정책토론회 질문 정리**

**언론사 질문**

1. 대의원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시 증진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공약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대의원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줘야한다. 일반학우들에게 대의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이에 있어서 관심도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타 대학에서 참고하여 공약을 가져오지 않았다.

2. 어떠한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 대의원에 대한 설명은 대의원 OT, 대의원총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반 학우들이 대의원의 관심도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오프라인 행사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3. 대의원 혜택 증진에 비교과포인트 상승부분이 학교와 합의가 된 부분인가.

답변 : 비교과 포인트는 학교와 합의를 마치고, 대의원 학교, 대의원 운동회 등 여러 대의원 혜택에 대해서 추후 학교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4. 대의원 역할지침서, 상임위원 감사OT 공약이 흡사해보인다.

답변 : 대의원 역할지침서는 대의원 + 상임위원 모두 배포할 생각이다. 상임위원 감사 OT는 상임위원만 진행하는 업무인 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다르다.

5. 대의원 + 상임위원 모두에게 역할지침서를 배포하고, 대의원 OT, 상임위원 OT 둘다 시행하는것은 어떠한가.

답변 : 대의원 역할지침서는 모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감사는 상임위원에게만 해당하는거라서 그렇게 시행할것이다.

6. 기존에 대의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업무가 전달이 되었고,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답변 : 현재 대의원 및 상임위원의 역할은 학생회칙을 확인해야만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대의원 설명회와 OT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학우 질문

1. 대의원 모집 증진을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대의원 설명회는 오프라인인가

답변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거다.

2. 오프라인행사를 진행하면 학우들의 참여도는 적다. 대의원 설명회에 학우들이 어떻게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답변 :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에 공지를 미리 하여 단톡방에 홍보를 할 예정이다. 사전에 SNS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여 모집을 받고 포스터도 공시를 하여 모집을 받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수집할 것이다.

3. 총대의원회 카페는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 모두가 참여가능한지, 특정인원만 가능한지

답변 :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설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이다. 가입하지 않아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보는것은 모든 인원이 모두 볼 수 있는건지

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이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답변 : 감사관련 질문사항들도 담겨져 있지만, 총대의원회의 업무나 행사에 대한 카테고리도 추가될 예정이다. 어떠한 질문이 많았는지 파악하고,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할 예정이다.

5. 대의원 관련 공약이 많은데 총학생회비를 인준받기에는 일반학우들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의원 관련 공약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을 위한 기구이긴 하지만 학우들을 위해서도 공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대의원에 대한 공약 먼저 생각해보았다.

6. 대의원 관련 공약은 다 비슷해보인다. 대의원 설명회도 참여율이 적으면 의미가 없어보인다. 대의원이 적다면 대의원 역할지침서를 배포하는것도 의미가 없고, 대의원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들어온사람에게 역할지침서를 다시 주는건 이해가되지 않는다. 대의원 혜택 증진은 여태까지 계속 진행하였는데도 대의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대의원 관련 공약이 많아서 효과가 있을지.

답변 : 대의원 설명회는 충분한 홍보과정을 거치고 진행할 예정이다. 대의원 역할지침서의 경우 학생회칙을 전부 다 읽어보고 지원하는 학우들은 적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7. 대의원 역할지침서는 학생회칙을 다시 읽어주는것에 그치지 않냐

답변 : 학생회칙에 나와있는것을 말해 줄 생각이지만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말할 생각이다.

8. 총대의원회 인스타그램 팔로워수가 몇명인지 아냐

답변 : 100명 초반이다.

9.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적고 에브리타임 공지도 잘 확인을 안하는데 과연 카페는 확인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답변 : 총대의원회 카페 개설 목적은 낙산의 메아리에 총대의원회 정보만 관련하여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개설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을 위해서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다.

확대운영위원회나 일반 학우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해 접속자 수를 늘릴 생각이다.

10. 홍보관련에 있어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카페나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다른 단위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했던것을 알아본적이 있는지

답변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이유는 운영도 한번 해봤고, 둘은 결이 다르다. 카페는 정보를 찾는것이 주 목적이고, 플러스 친구는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것이 다르다.

11. 오픈채팅방 한해서 감사는 다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을 진행하면서 플러스친구를 진행했었다. 사용자가 5퍼센트도 되지 않는데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왜 안했는지.

답변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알아보았으나 학생들에게 홍보가 적은것은 사실이다. 또한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은 1대1 오픈채팅방은 문제점이 많아서 발생한다. 오픈채팅 1대1은 감사국장 혼자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벼이 어렵다. 기본적인 감사질문은 플러스 친구를 통해 답변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12. 총대의원회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냐.

답변 : 대의원에 대한 업무, 감사 업무, 선거 업무 규율대 및 다른 업무도 진행한다.

13. 사실상 총대의원회도 총학생회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감사 평가표를 정립한다면 어디서 정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누가 상정할것인지, 담당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답변 : 감사평가표에 나와있는 평가표 기준은 학생회칙을 근거하여 잡아놨다. 감사 담당자는 피감사자를 의미한다.

14. 서울에있는 대학에서 총대의원회는 몇개의 대학에 존재하는가

답변 :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국대, 동국대는 확인하였다.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관리하고있다.

15. 총대의원회는 서울에서 3개가 존재한다. 해당학교를 참고하여 감사평가표를 정립한 것인지.

답변 : 동국대학교의 감사진행이 잘 되어있다고 판단하여 동국대학교를 참고하여 감사평가표를 들고 오게 되었다.

16.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 연합회 네 군데 중 유일하게 전체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단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대의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것이 총대의원회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투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의원 수가 낮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하시는거 같은데 대의원수를 높이는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17. 혹시 다른 기구에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는지 확인해보셨는지, 구체적인 홍보 방식이 있는지.

답변 : 다른곳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다른 학교에서는 카페 개설을 하여 정보의 접근이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낙산의 메아리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진행중인 행사나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록 하겠다. 인스타그램 홍보나 학생들을 마주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진행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도 말을 하여 진행한다.

18. 6대 인예대에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였다. 홍보를 진행했어도 부족했다. 학생회 간부들을 위하여 확인하는 용도로만 진행하여 인예대에서는 버렸다.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SNS라고 생각한다. 학우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

답변 : 총대의원회에 대한 소식이 무분별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한가지의 플랫폼에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사용할 것이다. 총대의원회에 대한 정보들만 찾기에는 어렵다. 온라인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거기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는 것이다.

카페에 대한 홍보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이 될 거 같다.

19. 대의원 역할 지침서를 배포하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인다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회칙에 존재하는 징계를 내릴것이다.

20. 어떤 징계냐

답변 : 비교과 및 대의원 자격 박탈이 된다. 지각 4회 이상 시 박탈이다.

21. 박탈이 된다면 이에 대한 공석은 어떻게 매울지

답변 : 대의원은 각 학년별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박탈된다면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재 선출할 생각이다.

22. 상임위원의 역할이 대의원보다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원에 대한 공약은 없는건지

답변 : 대의원과 상임위원의 차이점은 상임위원은 감사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 감사OT를 진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가져왔다.

23. 대의원 혜택은 지금 어떠하고 혜택을 증진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증진할 것이며 올해랑 어떻게 다른지

답변 : 현재 대의원은 비교과 포인트 30pt이고 상임위원은 비교과 포인트 50pt와 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는 대의원 업무에 비해 비교과 포인트가 낮다고 판단되어 학교측과 이야기를 나눠서 비교과포인트를 높일것이다.

대의원학교, 대의원 운동회, 대의원총회, 우수대의원선정 등 대의원들이 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다.

학생장학팀과는 비교과포인트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 장학금증진은 이야기해봤다.

24. 감사 OT는 매년 진행한느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상임위원 감사OT는 일반 피감사들에게 시행하는 OT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피감사자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 OT와 감사 담당자인 상임위원에게 시행하는 감사 OT는 내용이 다르다.

25. 대의원 혜택만 받기 위하여 활동을 하는 대의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서 박탈만 대안으로 가져온건지 다른 사항들을 생각해본게 있는지

답변 :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대의원 역할지침서, 대의원 OT, 상임위원 OT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거치기 때문에 대의원분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판단된다.

26. 감사진행과정에서 감사 담당자가 평가표를 모두 작성할거라고 예상이된다. 그렇다면 감사결과를 올릴때 감사평가표의 내용도 같이 올릴것인지.

답변 : 낙산의 메아리, 카페 둘다 업로드 할것이다.

27. 모든 공약이 홍보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28.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답변 : 대의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 분들에게는 선거유세를 진행하였고, 일반학우들에게도 선거유세를 할 것이다.

29. 대의원 홍보 목적으로 공약을 가져온거 같은데 비교과 포인트 심의 기준을 알고 있는지

답변 : 비교과 포인트 심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학생성공센터에서 심의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30. 학생성공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고 늘리겠다고 한건가

답변 : 비교과 포인트 증진 이야기는 학생장학팀과 이야기하고 학생장학팀에서 성공센터에 문의를 넣어서 증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31.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증진인지, 모집을 위한 증진인지

답변 :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업무가 대의원 수가 적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대의원 모집홍보를 통해 인원을 늘리고 이를 통하여 대의원의 업무를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다.

32.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대신 카페를 가져온게 더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는가

답변 : 페이스북 페이지는 운영한지 오래되었지만 학우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네이버 블로그나 최근들어 카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33. 낙산의 메아리에 감사 결과를 업로드하지 않고 카페를 통해 업로드 할 생각인지

답변 : 낙산의 메아리에서 감사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색어를 이용하여야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 카페를 통해 찾는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총대의원회에 관련한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을거 같다.

34. 총대의원회가 게시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감사결과의 조회수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있나.

답변 :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알고있다.

35. 대의원 비교과포인트 증대에 대해서 학생회 간부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나

답변 : 학생자치기구장의 경우 30~40pt 받는걸로 알고있다.

36. 상임위원의 비교과포인트가 증대되었을 경우 60pt가 되는데 60pt의 업무를 한다고 보여지는지

답변 : 그렇다.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안 심의나 학칙개정, 감사까지 진행하므로 맞다고 생각한다.

37. 총대의원회 자료 특성상 한글이나 엑셀이 많아서 카페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홍보에 대해서 에브리타임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카페 링크를 달아놓거나 자보를 활용하는것이 좋을 거 같다.  
네이버 카페에는 재선거나 선거 후보자들의 자료들도 게시할 예정인가.

답변 : 게시할 것이다.

38. 에브리타임에서 후보자들의 공약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포스터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 수 있으면 좋을거 같다는 말도 있었다. 학부 학생회는 홍보가 되고있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서 적극홍보를 하면 좋을거 같다.

39. 혜택 증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총학도 어렵게 진행했는데 만약에 장학팀에서 중간에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 비교과 포인트 진행이 어렵다면 대의원학교나 우수 대의원 선정에 있어서 상품을 증가시켜 혜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비교과 포인트를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40. 올해 우수 대의원에게는 어떠한 상품을 지급했는지와 증진한다면 어떻게 상품을 증진할 것인지

답변 : 현재는 만원짜리 쿠폰을 지급했다. 금액대를 높여서 치킨같은 상품을 주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1. 총학생회비는 전체 학생들이 납부하여 우수 대의원을 선정하여 상품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선거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 : 대의원 트랙별 학년별 대표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의 인원수는 늘어날 수 없고, 학생들의 대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거로 돌릴 생각은 없다.

42. 대의원들이 지침을 몰라서 대의원 지침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답변 : 알고 있지만 정확하고 세심한 부분을 안내하고, 업무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만들 것이다.

43. 공약을 진행해도 대의원 수가 미비하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 대의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총선거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

44. 총대의원회에 와서 감사열람파일을 본 사람이 몇명정도 있는지 알고 있나.

답변 : 다섯명 이상 왔었다.

45. 다섯분이 일반학우였는지 학생회 관련 분들인지

답변 : 학생회 관련사람이 많이 온다.

46. 낙산의 메아리 조회수나 감사파일을 열람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그렇다면 카페를 개설하는 이유는 학생회분들이나 일부의 사람만 이용할텐데 공약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 : 일반 학우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다. 여러 플랫폼에 올릴 예정이다.

47.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직접 학우들이 총대의원회에 방문할 시 상주 메뉴얼이 존재하는지

답변 : 현재 상주 메뉴얼은 정확하게 지침은 내려와있지는 않지만 운영방식에 대해서 생각했을때는 상주 인원이 다가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내년에 상주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상주 인원은 2명으로 고정하고 환하고 밝게 맞이하도록 하겠다.

48. 당선이 되면 상주 메뉴얼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